

페미니즘 소설 '82년생 김지영'을 읽자

여러분은 '82년생 김지영'을 읽어 본 적이 있나요? 이 책은 한국에서 2016년 10월에 간행된 이후 누적 136만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조남주의 페미니즘 소설입니다. 일본에서는 2018년 12월에 지쿠마서방(筑摩書房)에서 번역 출판되어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 약 23만부나 팔리고 있습니다¹*. 일본에서는 10만부 이상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기에 이 책이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 책의 주인공은 1982년생이고 1살 딸과 남편의 셋이서 사는 33살의 한국인 여성인 김지영 씨입니다. 김지영이라는 것은 1982년생 한국인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고 아주 흔하고 평범한 한국인 여성을 구현하려는 의도로 지어졌습니다. 이 책은 정신과 의사에 의한 지영 씨의 상담 기록이라는 형식으로, 여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느끼는 다양한 갈등, 고민, 피로, 고생, 아픔, 어긋남, 슬픔, 고통, 피로움, 그리고 불합리, 부담, 공포, 좌절, 절망 등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.

김지영이라는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?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, 이 책은 떠 동갑 정도 연상의 한국인 여성 이야기이며, "1982년생이 33살 때"라는 2022년에서 보면 7년전의 설정인 점이나, 지영 씨의 어머니 세대 이야기, 한국의 가족 행사의 모습 등에 관해서는 느낌이 잘 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, 이 책을 읽고, 여태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여성의 차별을 깨닫고 자기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.

제가 일하는 대학교에서는 이 책을 읽은 학생들에게서 여러 의견이 나와 활발한 논의를 나눴습니다. 지영 씨의 남편은 그 나름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, “이게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가?”라고 분노를 드러낸 학생도 있었습니다. 또한, 2019 년에 이 책은 한국에서 영화화되어 일본에서도 2020 년에 그 영화가 공개되었지만, 제 학생들 중에서는 소설과 비교했을 때의 영화의 부족했던 점에 대한 비판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. 예를 들어, 소설에 등장하는 정신과 의사는 남성이지만, 영화에서는 여성의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것은 소설의 의도를 망쳐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등등….

여러분도 꼭 한 번 이 책을 읽어 보고, 주변 사람들과 같이 책 소감을 나눠 보면 어떨까요?

이이쿠라 에리이(고베여자대학교)

¹ 지쿠마서방의 '82 년생, 김지영' 특설 사이트(<https://www.chikumashobo.co.jp/special/kimjiyoung/>).